

잔류 조기 확정 광주FC, 원정경기서 아쉽게 발목

대구FC에 종료 직전 0-1 ‘석패’
안방 2연전 승리 후 상승세 멈춰



파이널라운드 진입 후 치러진 안방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잔류를 조기 확정지은 광주FC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광주FC는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석패했다.

광주는 김경민이 골문을 지켰고 진시우와 변준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다. 좌우 풀백으로 심상민, 조성권, 중앙 미드필더에는 주세종, 유제호, 공격에는 안혁주와 문민서를 좌우 날개로 헤이스와 최경록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경기 초반 광주는 선제골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 4분 오른쪽 측면에서 문민서가 환상적인 테크닉으로 황재원을 벗겨낸 후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살짝 비껴갔다. 10분엔 왼쪽에서 안혁주가 번뜩였다. 특유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돌파로 왼쪽을 휘저으며 대구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20분이 지나가며 광주와 대구는 수비 라인에 일정 숫자를 유지한 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해 갔다. 전반 추가 시간 1분 다시 한번 안혁주가 공격 활로를 개척했다. 지지부진한 공방이 오가던 흐름을 깨는 날카로운 침투 후 낮고 빠른 크로스로 상대를 위협했다. 다만 이는 쇄도하던 헤이스의 발끝에 걸리지 않으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정호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혁주, 문민서를 불러들이고 하승은, 신창무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지난 제주SK FC와의 경기서 골맛을 본 신창무의 가세로 공격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기세를 탄 광주는 58분 최경록 대신 프리드온슨, 60분엔 주세종 대신 이강현을 넣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75분이 되자, 양 팀의 일전은 1골 싸움 양상



광주FC는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석패했다.

으로 흘렀다. 광주와 대구 모두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점 3점을 위해 단 1골이 필요한 흐름으로 굳어졌다. 84분 대구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현준이 문전으로 보낸 공을 에드가가 기습 트래핑 후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에 맞고 튕겨 나갔다.

대구가 점차 점유율을 늘려가며 광주 진영으로 공격해 오는 빈도가 높아지자, 이정호 감독은 87분 심상민을 빼고 민상기를 넣으며 수비진을 보강했다. 89분 광주 수비진이 내려앉은 틈을 타 라마스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빨리 반응한 김경민 골키퍼의 품에 안

겼다. 이어진 공격 상황에선 김강산이 김강산이 니어포스트를 보고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김경민 골키퍼의 수퍼세이브에 막혔다.

김경민 골키퍼의 맹활약에 힘입어 대구의 파상공세를 버텨내던 광주는 종료 직전 통한의 선제골을 내졌다. 왼쪽 측면에서 정현택이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가 김경민 골키퍼와 광주 수비진 사이를 관통했고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김현준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막바지 추격을 위해 총공세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0-1 패배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찾아가는 전통씨름 ‘길거리 씨름 한 판’ 성황

제19회 거제섬꽃축제서 개최

1500여명 다녀가 높은 관심

대한씨름협회는 8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열린 ‘제19회 거제섬꽃축제’에서 ‘2025 찾아가는 전통씨름-길거리 씨름 한 판’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500여명이 다녀가며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거제섬꽃축제는 꽃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대표 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씨름협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씨름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행사는 거제시청씨름단 선수들의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열기를 더했다. 이어 진행된 씨름 체험 교실에는 50명의 참가자들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씨름을 체험하며 전통씨름의 묘미를 느꼈다.

이후 진행된 ‘길거리 씨름 한 판’에서는 남자부·여자부 경기 모두 접전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번 행사의 성인 남자부와



대한씨름협회는 8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열린 ‘제19회 거제섬꽃축제’에서 ‘2025 찾아가는 전통씨름-길거리 씨름 한 판’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500여명이 다녀가며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일상자들 모습.

성인 여자부에서는 각각 김민혁, 장여은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 공동 3위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5 찾아가는 전통씨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한씨름협회에서 운영하는 민속씨름 저변확대 사업이다. 전국의 다양한 축제(지역 축제, 대학교, 전통 시장, 해변 축제 등)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씨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황유민, KLPGA 시즌 최종전 4차 연장 우승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 기록…상금왕 홍정민 차지

‘돌격 대장’ 황유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5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했다.

황유민은 9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했다.

임희정, 이동은과 함께 공동 1위로 54홀을 마친 황유민은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4차 연장전에서 6.4m 버디 퍼트를 넣고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 2026시즌 미국 진출을 예약한 황유민은 KLPGA 투어 대회로는 지난해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2026시즌부터 LPGA 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황유민은 KLPGA 투어 2025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2라운드까지 서이진과 함께 공동 1위였던 황유민은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이며 임희정, 이동은과 연장전을 벌였다.

임희정과 이동은은 2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10위였다가 이날 나란히 5타를 줄이고 연장에 합류했다. 이들 세 명은 18번 홀에서 진행된 1, 2차 연장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고, 핀 위치를 바꾸고 티샷 위치도 앞으로 당긴 3차 연장에서 먼저 임희정이 1m 짧은 파 퍼트를 홀 왼쪽으로 보내 탈락했다.

4차 연장에서는 이동은이 8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쳤고, 이어 황유민이 6.4m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홀 안으로 보내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시즌 최종전까지 상금 부문에서는 홍정민이 13억415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인상은 서교림에게 돌아갔다.

평균 타수는 이 대회 전에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된 유현조가 1위에 올랐으며, 다승은 3승을 거둔 홍정민과 방신실, 이예원이 공동 1위가 됐다. 연합뉴스

조명우, 광주 세계 3쿠션 월드컵 4강 진출

맥스와 결승행 격돌…광주당구연맹 최완영 8강서 탈락

‘2025 광주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4강이 가려졌다.

조명우(서울시청)가 국제캐롬연맹(UMB) 2025 광주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4강에 진출, 에디 맥스(벨기에)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조명우는 8일 오후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반리다오(베트남)를 50-25로 가법계 제압한 데 이어, 8강에서는 최완영(광주당구연맹)을 50-23으로 누르고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기대를 모았던 황봉주(시흥시체육회)는 16강에서 타이푼 타스데미르(튀르키예)와 접전 끝에 48-50으로 아쉽게 패배해 대회를 마감했다.

‘UMB 4대 전왕’ 중에서는 맥스가 4강에 합류했다. 맥스는 16강에서 다니엘 모랄레스(콜롬비아)를 50-38로 꺾은 뒤, 8강에서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마저 50-37로 제압했다.

이 밖에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는 8강에서 타



스데미르를 만나 50-49 한 차 상승을 거두며 4강에 올랐고, 글렌 호프만(프랑스)은 마틴 혼(독일)을 50-42로 누르고 마지막 4강 자리를 차지했다.

9일 열리는 4강전은 조명우-맥스, 호프만-자네티의 대결로 압축됐다. 조명우와 맥스의 경기는 제1경기로 오후 1시에, 호프만과 자네티의 경기는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